



골드키위 '감황', 꽃봉오리 모양 달라져도 수확량은 안정적

- 일부 농가 꽃봉오리 이상 현상에도 실제 열매달림 상태는 양호
- 적절한 개화기 관리로 목표 열매수 확보 가능
- 순 관리 등 재배법 연구로 농가 부담 줄일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제주 일부 골드키위 '감황' 재배 농가에서 꽃봉오리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꽃봉오리 기형) 경우가 있었지만, 개화기 적절한 재배 관리가 이뤄지면 실제 수확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감황'은 열매가 크고 당도가 17~18브릭스로 높으며, 과육의 노란색이 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애월에 전문 생산단지가 조성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큰 꽃봉오리(중심 꽃)와 작은 꽃봉오리(곁 꽃)가 자연스럽게 나뉘지 않고 함께 붙어 있는 형태가 관찰됐다. 이런 꽃봉오리는 열매가 달려도 상품성이 떨어져 열매 숙기 과정에서 제거 대상이 된다.

다만, '감황'은 전체 열매까지 하나당 꽃 수(개화량)가 6~8개로 많아 꽃봉오리 숙기 과정에서 이를 우선 제거하더라도, 목표 열매 수 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정상
꽃봉오리,
아래: 기형
꽃봉오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생육 진단과 열매 상태를 점검한 결과, 기형 꽃봉오리 발생률이 높은

농가에서도 실제 열매달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형 꽃봉오리 발생률이 약 35%포인트 정도까지 차이 나는 6개 농가의 열매양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아르(1,000㎡)당 잠재 수확량은 약 4.5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골드키위 표준 수확량인 10아르(a)당 3.0톤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해당 현상이 최종 생산량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현재 기형 꽃봉오리 발생을 최소화해 농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순 관리, 가지 유인, 가지치기 등 처리 방법별 발생 정도를 비교·분석해 2027년까지 체계적인 관리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문규철 소장은 “꽃봉오리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키위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라며 “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해 농가의 개화기 작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키위 ‘감황’ 생육 상황과 수확 전망

붙임 2. 키위 ‘감황’ 꽃봉오리 발생 양상에 따른 속기 방법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책임자	과 장	문규철 (064-741-2524)
		담당자	연구사	이목희 (064-741-255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1 키위 '감황' 생육 상황과 수확 전망

□ 생육 상황과 수확 전망

- 조사시점은 개화 후 약 60~80일이 경과한 열매 숙기가 종료된 단계로 남은 과실의 비대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음 * 통상 관리목표 3.0톤/10a
 - 다만, 금번 추정치는 7월 착과량을 기준으로 한 잠정 추정치이며, 최종 상품수량은 수확기에 확정할 예정임
 - '감황'은 꽃의 양이 많아 기형 꽃봉오리를 다 제거하여도 목표하는 열매 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음

<기형 꽃봉오리 발생률에 따른 착과량 비교>

구분	기형 꽃봉오리 발생률	열매숙기 후 착과량	10a 착과 잠재량
A농가	14.8%	811개/주	약 4.4톤
B농가	51.6%	896개/주	약 4.8톤

- 향후, 고온 피해, 과도한 영양생장, 병해충 발생 등에 따른 상품률 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온 예방, 여름전정, 병해충 관리가 필요함



붙임 2 키위 ‘김향’ 꽃봉오리 발생 양상에 따른 솎기 방법

구분	솎기 전 모습	솎기 후 모습
1	 중심 꽃봉오리만 4개 미만 발생	 꽃봉오리 솎기 없음
2	 중심 꽃봉오리만 5개 이상 발생	 맨위, 맨 아래 꽃봉오리 제거
3	 중심 꽃봉오리 5개 이상과 함께 곁 꽃봉오리 발생	 아래쪽을 훑어내듯이 제거 후, 가장 위 꽃봉오리 제거, 가운데 충실한 눈 3개 남기고 곁 꽃봉오리 제거
4	 중심 꽃봉오리 5개 이상과 함께 곁 꽃봉오리 발생하나 기형 꽃봉오리도 발생함	 기형 꽃봉오리를 우선으로 제거한 후 정상 꽃봉오리를 남기고 곁 꽃봉오리 제거

* 골드키위 개화기는 제주지역은 4월 하순, 육지부(남부 해안가)는 5월 중순이며, 그린키위는 이보다 더 늦음